

# 절마다 'IMF 쉼터' 마련

# 교계 북돋기 두 단체 통일준비기구로 전환

## 뉴스 & 뉴스

### 경기 경승연합회 창립

경기도내 28개 경찰서 경승모임인 경기지방경찰청 경승연합회가 21일 오전 경기경찰청 강당에서 창립했다. 경승실 개원법회를 겸한 이날 법회에는 경기지단장 정락스님(용주사 주지)을 비롯 경기도내 스님과 신도·경찰관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

이날 회장에 선출된 우담스님(용인 금륜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살의 덕성을 심어주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교화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청교련 전남지부 발족

대한불교청교련전남회 전남지부(지부장 용진스님·봉우사 주지)가 23일 해남군 봉우사에서 발족.

용진스님은 "청교련들은 미래불교의 주역이기도 하면서 현재 사회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말하고 "청교련 포교는 물론 지역불교의 활성화를 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교련은 이르면 15개 지부와 3개 회회를 꾸려가게 된다.

### 부산실업인회 경제강좌

부산불교실업인회(상임부회장 서춘석)는 16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1월 정기법회를 열고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의 법문과 박수복 감사의 경제강좌를 마련했다. 성오스님은 법문을 통해 "경제적 난관에 처해 기업을 하는 이들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이겨야 한다"고 법문했다.

### 이벤트사업본부 추진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 이하 포교회)는 지난 19일 대각사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벤트 사업본부 "부루나"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신년사업으로 △월요 정기강좌 △여행·겨울 불교학교 지도자강좌 △3월·10월 2급 레크리에이션자격강습 △4월~11월 청소년문화소식 △7월 가족캠프 및 어린이연꽃캠프 △12월 후원의 밤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 북한불교연구회 설립

97년 한해를 풍포살리기에 앞장서온 교계 북녘동포들기운동기구들이 장기적 통일대비기구를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북녘동포들기운동기구추진위원회(위원장 지선스님)는 "북한불교연구회"를 설립, 남북불교간 문화·학술교류 및 북한불교연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우리 민족서로통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도 기존의 한국

### 불교사회연구소 통일이후 한국 불교를 준비하는 연구기관으로 더욱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추진위는 사업으로 △남북 통일기금 조성 △남북불교 재건 사업 추진 △남북불교교류 및 북한지역 전포살할 북한 추진 △정책 개발 △통일포교사 양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운동본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하기위해 한국불교사회연구소를 활용키로 했다.

### 금모으기 법회 현장의 화제

금모으기 법회에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조계사와 도선사에서 열린 금모으기 법회에는 5백여 불자가 참여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모으기 법회에 동참한 신도들이 내놓은 금불이에는 다양한 사연이 얽혀 있었다.

조계사 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지난해 송재건 전국신도회장에 선물받은 금거북상과 작년 박찬호선수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던 관음보살 금메달을 내놓았으며 송재건 회장이 집안에서 보관해 온 금제종을 내놓았다.

작년 10월부터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이경희씨는 깃돈을 모아 장만했던 20여돈의 금불이를 내놓으며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길 기원했다.

광명시 철산동에서 왔다는 박순옥씨는 88년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했던 금메달을 내놓았으며 장영숙씨(송파구 가락동)는 이미 직장에서 받은 기념메달을 은행에 맡기고 두번째로 결혼

패물을 들고 나왔다고 전했다. 만자(17) 반지 등 30여돈을 내놓은 이원만보살(광진구 구의동)은 "마음이 상할때마다 어루만지던 것이지만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더 값질 것 같다"며 밝은 웃음을 띄어 보였다.

도선사 금모으기 법회에서는 주지 동광스님이 신도들로부터 선물받은 금제종을 모두 내놓았으며 강북구 일원의 스님들이 신도들과 함께 동참해 '황금불심'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9일에는 양산의 한 사찰 주지스님이 부처님 복장에 보관해 오던 금을 은행에 맡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관음보살 금메달 '단'자 반지 40년전 금브로치 나라사랑 불심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경기 남양주 불암사(주지 일면)는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를 늦어도 2월중순까지 마련키로 했다. 30여명 규모의 동축담에 속소와 전화, 팩시밀리를 갖춘 사무실을 함께 두고 직업양성은 물론 전문상담원도 둘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 종교백 허문 '자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1일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성금'으로 마련된 5백여만원 상당의 성금과 생필품을 전했다. 월주스님의 이번 방문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터종교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처음으로 방문한 것. 월주스님은 꽃동네 원장 오종진 신부와 회담을 나누고 꽃동네 시설을 둘러보았다. 월주스님은 또 경기도 광주군의 일문군 위안부 시설인 나눔의 집(원장 해진스님)을 방문, 격려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1일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성금'으로 마련된 5백여만원 상당의 성금과 생필품을 전했다. 월주스님의 이번 방문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터종교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처음으로 방문한 것. 월주스님은 꽃동네 원장 오종진 신부와 회담을 나누고 꽃동네 시설을 둘러보았다. 월주스님은 또 경기도 광주군의 일문군 위안부 시설인 나눔의 집(원장 해진스님)을 방문, 격려금을 전달했다.

(윤성·고영배 기자)

### 사찰 신행상담실서 실직자들 '마음 위안'

### 종단협 소비자보호위 '오뚜기모임터' 개설

"스님,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낮에 양복을 입고 법당을 찾는 중년 가정, 남편들의 안면을 기원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서울 시내 사찰과 불암산 북한산 등 인근 산사에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는 불자들의 발길이 급증했다. IMF파고에서 실직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 고난을 극복할 지혜를 구하기도 한다.

목동 법안정사(주지 대운)에는 최근들어 사찰을 찾는 실직자들이 늘자 신행상담실을 마련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북한산 도선사(주지 동광)에도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주지스님을 찾거나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춘천 석왕사(주지 백운)에는 사찰을 찾는 실직자들은 물론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상도동

사자암(주지 도각)도 일요정기법회에 참석하는 신도가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IMF시대에 사찰이 마음의 안정과 지혜를 주는 마지막 희망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류를 반영, 불교단체와 사찰이 실직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장소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총지종 총무원)는 21일 역삼동 총지종 총무원 2층에 실직자와 파산 기업기업자들을 위한 '오뚜기모임터'를 개설했다.

15명 규모의 방에 전화와 팩시밀리, 사무용 책상, 소파, 대형책장, 캐비닛, 회의용 탁자 등을 모두 갖춘 '오뚜기모임터'는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 "불교 유아교육 내실화 시급"

### 조계종 불교어린이집 총사자 직무교육서 제기

'불교사상에 입각한 교육프로그램개발과 교육환경조성, 교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불교유아 포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제까지 시설위탁이나 설립위주로 추진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의 불교유아교육

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같은 주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유아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33개 교계유아시설 총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처음으로 열린 불교어린이집 총사자 직무교육에서 제기됐다.

또 이날 참석한 26곳의 교계유아시설 원장들은 격일단위로 정기모임을 갖고 시설간 상호정보교류 및 네트워크형으로 발전을 모색키로 했다.



불교문화센터 자원 봉사단

### 진흥원 산하 자원봉사단 자광원 위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산하 자원봉사단원들 30여명과 15일 부처님마를 성남 자광원을 방문하고 월동 유류대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진흥원 불교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노인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권했으며 주민들의 음식을 준비하여 다과시간을 마련,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전불련 회원중심 조직개편키로

### 운암불교연구원 개설

전국불교운동연합이 98년 한해를 조직개편과 함께 불교운동의 동력 형성을 위한 부설 연구원을 개설하는 등 위상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전불련은 21일 9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분단이후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룬 사회변화에 발맞춰 미래불교, 생산불교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승불교운동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개별회원 중심으로의 조직개편 △운암불교

연구원(가칭) 개설 △정책토론회 활성화 △불교계 통일일꾼 양성 사업 등을 설정했다.

또 부설 연구소로 '운암불교연구원(가칭)'을 4월중에 개설, 불교개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연구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불련은 외장 지선스님(백암사 주지)이 사퇴사를 밝힘에 따라 2월20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신임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신임 의장으로는 전불련 지도위원 지선스님(안산 보현사 주지)이 유력시되고 있다.

해인공포장의 적법관료 가야산의 환경과 과거 우려되는 가운데 가야산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교통관료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4백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합천군 가야면에서 해인사 신부라과 마장동을 거쳐 가로로 이어지는 총연장 12.9km 노폭 11m의 왕복2차선 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작년 11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오는 3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인 이 도로가 건설되면 교량 8개소와 교차로 3개소가 들어서며 국립공원에 1.1km의 가야터널이 뚫리는 등 극심한 환경훼손이 예상된다. 또한 도로를 따라

산림이 형성될 경우 홍수등 계곡의 수질오염은 물론 해인성지의 수평경도는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경북 성주군이 가천면 신계리 일대 42만여평에 추진중인 관광휴양단지 조성될 경우 가야산국립공원 둘레는 거대한 순환도로망이

형성되어 해인성지는 관광위락단지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해인사 학인스님들은 "도로가 개설되면 골짜기가 들어서서 옛 이상으로 종교 및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한다. 개발도 좋지만 수평환경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95년 대법원은 "종교환경권도 환경영향평

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천혜의 경관과 총 82점의 문화유적을 보유한 가야산국립공원 일대에 개발의 유혹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인공포장 건설지지를 위한 해인총림결의대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보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것은 단적인 예다.

우리민족의 정신적 성지를 품고있는 가야산국립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개발일 수 있음을 관계당국은 모르는 것일까.

차체에 불교계는 사찰의 수평환경과 민족문화의 보호를 위해 전국조직의 환경재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보다 체계적인 '환경지킴이' 역할을 할 때 가야산의 몸살도 치유될 것이다.



이운호 (대구 주재기자)

### 가야산 이곳저곳 '몸살'

형성되어 해인성지는 관광위락단지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해인사 학인스님들은 "도로가 개설되면 골짜기가 들어서서 옛 이상으로 종교 및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한다. 개발도 좋지만 수평환경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95년 대법원은 "종교환경권도 환경영향평

#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쉼(넌새)은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언머의 태중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흰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준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조(創造)시킵니다.

###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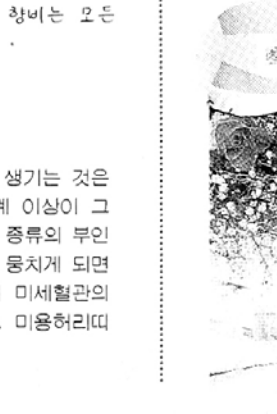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무리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동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으로부터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디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무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 동양의향에도 향비(香妃)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 때 빛깔이 짙고 고통이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굼은 살이 있다. ( )
  14. 진박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감성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서 부주 산과동

저는 50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 꼭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